

일제 강점기 부산·경남 지역 시인 발굴 및 재조명 연구*

- 김대봉(金大鳳) 재발굴 및 재조명

고 현 철**

차 례

- | | |
|-----------------------|-----------|
| 1. 서 론 | 6. 시사적 의의 |
| 2. 연구사 검토 | 7. 결 론 |
| 3. 시작품 연보 오류 정정 및 재작성 | 참고문헌 |
| 4. 시집 『無心』의 구성원리 | 영문초록 |
| 5. 시세계의 공시적 다양성 | |

1. 서 론

한국문학 연구에서, 서울에서 일정 기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서울과 거의 연관이 없는 문인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서울중심주의 때문에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면이 많다. 그래서 서울과 큰 인연이 없이 거의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만 활동한 문인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한국문학사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02-A00078)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에서 잊혀진 경우도 상당히 많아 그 지역은 물론 한국문학 전체의 지형 속에서 제대로 연구되어야 하는 일을 정체시킨 면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근래 지역문학에 대한 연구가 서울중심주의에 대한 반성과 지역화 및 상대주의에 따라 지역문화의 발굴 및 고취에 힘입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아직 그 성과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출신인,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생애 대부분을 활동한 문인 가운데 역량 있는 문인을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일은 한국문학의 지형을 넓혀 새로 짜고 그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일제 강점기에 등단하여, 서울에서 한때 거주한 적도 있긴 하지만 서울 이외의 지역인 부산·경남과 평양에 생애 대부분을 거주하면서 활발하게 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시인인 포백(抱白) 김대봉(金大鳳)을 재발굴하여 재조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시인 발굴 및 재조명 연구인만큼, 시 자료 조사 및 정리를 바탕으로 한 시작품 연보 작성 등의 서지학적 연구를 비롯한 역사주의 연구방법과 시 세계와 시사적 의의를 해명하기 위하여 정신사적 관점과 미학적 관점을 병행한 분석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포백 김대봉은 1908년 경남 김해에서 출생하여 동래고보를 거쳐 평양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의원을 개업하여 진료하고 세균학 교실에서 연구활동도 하였으며 『대중의학』을 주재하기도 하는 등 의사로서 투철한 삶을 살아간 인물이다. 그는 동래고보 재학시절 『조선일보』(1927.9.13.)에 「농부의 노래」를 발표하면서 문단활동을 시작하였다. 1938년 6월에 창간되고 1939년 4월에 중단된 「맥(獮)」 동인으로 활동하였으며, 1938년 10월에는 이 동인지를 낸 맥사(獮社)에서 시집 『무심(無心)』을 출간하였다. 평생을 시인이면서 의사로 살아간 그는 1943년 3월 환자로부터 발진티푸스가 전염되어 짧은 생애를 마감하였다.¹⁾

1) 작가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정호, 「포백 김대봉의 삶과 문학」, 『경남어문논집』 제7·8 합집, 경남대 국문과, 1995.12. 특히, 이 논문에서 작성하고 있는 「작가 해적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이 연보 가운데, 김해읍에 의원을 개업한 연도가 이 논문의 본문과 달리 1935년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과 같이 1934년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연보에서는 『동아일보』(1929.10.29.)에 「無題」를 발표하여 등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후의 논문인 한정호, 「김대봉의 동

2. 연구사 검토

김대봉의 시에 대한 언급은 1938년 그의 시집 『무심(無心)』이 발간되었을 당시에 임화와 윤곤강이 신문을 통하여 이 시집에 대한 짧은 서평을 한 것이 있다. 임화는 「김대봉 시집 『무심』을 독(讀)함」에서 이 시집의 중심은 시집의 전반부에 있는 「無心篇」과 「斷絃의 悲鳴」에 있으며, 그 중에서 시 「無心」이 백미라고 평하고 있다.²⁾ 윤곤강은 「김대봉시집 『무심』의 푸로필」에서 “『무심』의 시인은 무척 고뇌를 사랑한다”고 단적으로 평하고 있다.³⁾

1942년 6월부터 같이 거주하고 김대봉이 자신의 시작품 「憂愁愛」의 부제를 ‘김용호형에게’라 붙일 정도로 김대봉과 친분이 두터웠던 시인 김용호는, 김대봉이 세상을 뜨자 「오늘을 - 김대봉형을 생각하며」라는 추모글을 발표하였으며,⁴⁾ 세월이 지난 후에 「무심에 핀 꽃 김대봉」이라는 글을 통하여 그를 추억하면서 김대봉에 대하여 “단순하고 솔직하고 시비가 뚜렷하고” “내연(內燃)하는 그 풍부한 인정미, 벽찬 삶의 의욕, 깨끗한 의지”를 지닌 인물이었다고 평하였다.⁵⁾

조동일은 한국문학사 가운데 근대문학을 다루고 있는 『한국문학통사 5』에서 간략하게 김대봉의 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동일은 “시집 『무심』을 보면 시가 시인의 자기 만족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잘못된 역사 앞에서 무력했던 데 대해 깊은 가책을 느끼고, 새로운 출발을 절규하면서 다짐했다. 「가두의 선언」에서, 시인이 예술을 한다면서 헛된 격식에 매여 웃음을 팔고 곡예를 하지 말고 거리로 뛰쳐나와 역사와 바로 대면하고 군중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시를 쓰는 방식을 두고 고심하며, 발성연습이라 할 것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여 김대봉의 시를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시 「소리」를 들어 “시인의 각성 단계를 암시하는 의미가 있으면서, 익숙한 장

시관과 동시 세계』, 『지역문학연구』 제3호, 경남지역문학회, 1998.9에서 『조선일보』(1927.9.13.)에 「농부의 노래」를 발표하여 등단한 것으로 바로 잡혀져 있음이 자리에서 밝힌다.

2) 『조선일보』, 1938.11.4.

3) 『동아일보』, 1938.11.8.

4) 『중외일보』, 1946.3.19.

5) 『현대문학』, 1962.12.

단, 오랜 가락을 되살린 뛰어난 감각을 갖추어 더욱 주목된다. 내면의식의 음악에 침잠하기만 한 김영랑보다 오묘함이 모자라지 않으면서 다채로움까지 갖추어, 안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밖으로 뻗어나는 자세를 마련했다. 그런데 준비 단계를 넘어서서 역사와 바로 만나고 현실에 직접 뛰어들어, 발성연습을 보람되게 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함으로써 이 시를 통하여 김대봉 시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⁶⁾ 김대봉에 대한 조동일의 언급은 김대봉을 한국문학사 속에 편입시켜 그 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첫 시도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저서 속에서 너무 소략하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도 충분히 논증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당연히 김대봉의 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된다.

김대봉의 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김부순의 「시인 김대봉의 작품세계 연구」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김부순은 김대봉의 시세계를, ‘시적 출발과 단형(單形)의 시세계’·‘시와 의술(醫術)의 인간주의’라는 전기(前期)의 두 유형과 ‘상실 모티프와 삶의 비애의식’·‘허무와 죽음의 자장(磁場)’이라는 후기(後期)의 두 유형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통시적 변화보다는 오히려 공시적 다양성에 강조점을 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⁷⁾ 이 논문은 김대봉의 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첫 연구논문으로, 김대봉의 시세계를 몇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김대봉의 시에 대한 본격적인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보와 시작품 연보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연구의 기초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논문의 머리말 가운데 제시되어 있는 “김대봉의 시력과 시세계를 검토함으로써, 30년대의 시적 다양성과 총체성의 일부를 밝히고 그것이 올바른 한국시사의 정립을 위한 기초작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사항이 논문의 본문을 통하여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김대봉과 그의 시작품에 대한 연보가 작성되어 연구의 기초작업이 이루어진 본격적인 논문으로는 유일하게 한정호의 「포백 김대봉의 삶과 문학」이 있다.

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제3판, 지식산업사, 1994, 501-503쪽.

7) 김부순, 「시인 김대봉의 작품세계 연구」, 『서강어문』 제10집, 서강어문학회, 1994.12.

이 논문은, 김대봉의 연보와 무엇보다도 그의 시작품 연보를 자세히 정리하고 있어 김대봉의 시에 대한 연구의 바탕을 마련한 상당히 의미 있는 논문이 된다. 여기에서 김대봉의 시적 특성과 그 변모 양상을, 전기(前期)는 ‘현실인식’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현실주의 동요적 단형시’와 ‘지식인의 고뇌와 허무의식’으로 드러나며, 후기(後期)는 ‘상실의식’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고향 또는 가족의 상실 체험’과 ‘현실 극복의 문학적 방안’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⁸⁾ 하지만, 이 논문은 연구의 기초사항이 되는 연보, 특히 시작품 연보에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파악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있다.⁹⁾ 김대봉의 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위해서는 우선 그 연보부터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보다 정확한 연보 작성의 필요성을 남기고 있는 것이 된다.

또한 김대봉의 시적 특성을 시적 세계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여 그의 시가 지니고 있는 형식 미학적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그리고 김대봉의 시를 전기(前期)의 ‘현실인식’과 후기(後期)의 ‘상실의식’이라는 변모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김대봉이 활발하게 시작 활동한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에는 현실인식과 상실의식이 서로 넘나들 수가 있는데, 현실인식과 상실의식이 하나의 쌍이 되어 이것이 변모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김대봉의 시적 특성이 1930년대에는 어떤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한 해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미 이루어진 김대봉의 시작품 연보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 연보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기초작업에서 출발하여, 그의 시적 특성을 내용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까지 아울러 파악하고 이 둘의 상관관계에서 그의 시적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김대봉의 시가 지니고 있는 시사적 의의를 해명해 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8) 한정호, 「포백 김대봉의 삶과 문학」, 『경남어문논집』 제7·8 합집, 경남대 국문과, 1995.12.

9) 한정호는 이후에 김대봉의 동시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 「김대봉의 동시관과 동시세계」, 『지역문학연구』 제3호, 경남지역문화회, 1998.9.을 발표하는데, 여기에서 빠진 동시 작품 연보가 보완이 된다. 하지만 동시까지 포함한 시작품 연보상에 오류가 여전히 상당히 내재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기초작업을 위하여 이를 지적하고 시작품 전체의 정확한 연보 작성이 필요한 것이다.

3. 시작품 연보 오류 정정 및 재작성

본 논문에서 시작품 연보를 작성하는 원칙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시작품이 신문·잡지 등의 매체에 발표된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시작품 말미에 그 시를 쓴 연도가 밝혀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라도 그 당시의 매체에 발표된 순서에 따랐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은 매체에 발표됨으로써 공식화되어야 비로소 작품으로 널리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체에 발표된 순서를 종적인 축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쓰여진 시기가 앞서 있다 할지라도 발표된 시기가 늦은 경우는 뒤로 돌려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횡적인 축은 작품 제목, 발표지, 발표연도, 비고란의 순으로 잡아 정리하였다. 같은 때에 발표된 경우, 쓴 시기가 밝혀져 있는 작품들은 앞선 시기 순으로 정리하였고 그 시기가 밝혀져 있지 않은 작품들은 매체에 따라 수록된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신문·잡지 등의 매체에 발표되지 않고 시집 『無心』(1938)에 처음으로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은, 쓴 시기가 밝혀져 있는 경우는 그 시기에 따라 순서를 잡았고 쓴 시기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는 시집에 수록된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이들 작품들을 그 전에 신문·잡지 등의 매체에 발표된 작품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비고란을 통하여 그 시기를 밝혔다. 그리고 신문·잡지 등의 매체에 발표되었다가 나중에 시집 이외의 다른 매체에 재수록된 작품들을 비고란에 다 표시해 두었다. 이 밖에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본 논문을 작성하는 데에만 아니라 앞으로 김대봉의 시에 대한 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비고란을 통하여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시작품 연보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제 목	발 표 지	발 표 연 도	비 고
농부의 노래	조선일보	1927. 9. 13.	학생문예 : 동래고보
갈매기	조선일보	1928. 1. 1.	동래고보
無題	동아일보	1929. 10. 29.	學藝部考選 : 김해
우박	동아일보	1930. 1. 1.	學藝部考選
텅 비고 싶어			→시집『無心』(1938) : 1932
황혼의 강변	동아일보	1930. 1. 8.	
나의 소원	조선일보	1930. 9. 20.	
나루배 사공도	조선일보	1930. 9. 26.	동요 - 平醫一年

제 목	발 표 지	발 표 연 도	비 고
나루배	동아일보	1930. 12. 15.	어린이 페이지
그 患者	조선일보	1931. 8. 24.	平醫
떠나는 동무	어린이	1932. 1.	
보리피리	동아일보	1932. 2. 27.	동요:아동페이지→시집 『無心』
鐵世界的 使命	혜성(慧星)	1932. 3.	독자문예란
어린이의 말	동아일보	1932. 3. 14.	동요
煩惱의 달밤	조선일보	1932. 4. 20.	
夜街의 點景	조선일보	1932. 4. 21.	
先驅者의 偉力	혜성(慧星)	1932. 4.	독자문예란
孤魂의 絶叫	혜성(慧星)	1932. 4.	독자문예란
死體解剖	조선일보	1932. 4. 9.	平醫
學窓에서	조선일보	1932. 5. 3.	학생란 : 平醫
아버지 손을 보고	어린이	1932. 6.	동시 : 1932
自誓			→ 시집 『無心』 : 1932.6.13.
슬픈 出發	동광(東光)	1932. 8.	
還鄉	신동아	1932. 10.	독자시단 → 시집 『無心』
차라리 울어줌이			→ 시집 『無心』 : 1933.1.7.
迎春辭	신동아	1933. 4.	신동아시단 : 1933.1.5.
젊은이에게 보내는 노래	신동아	1933. 8.	신동아시단
街頭의 宣言	신동아	1933. 9.	→ 시집 『無心』 : 1931
生活詩篇: 1. 永遠 한不幸 : 2. 말만의 세상 : 3. 爭鬪 : 4. 無題	조선일보	1933. 9. 27.	우리시단→시집, 『詩林』(1939.3) 재수록 → 시집 『無心』 → 시집 『無心』: 시제 「엄마는,
濁浪의 洛東江	신동아	1933. 11.	
枯木	신동아	1933. 12.	
無能한 아버지	조선문학	1933. 12.	: 1933.11.
求道者	신동아	1934. 2.	: 1933.12.
出發	신동아	1934. 8.	→ 시집 『無心』 : 1934.
洪水餘韻	신동아	1934. 10.	
傷春曲 : 1. 相殺(兩面生活) : 2. 幻影 : 3. 葉書한章	삼사문학	1934. 12.	→ 시집(『點想集』 중 「相殺」 → 시집(「傷春曲」 중)
咀呪할 西京	신인문학	1934. 12.	
卓上語(十篇)	조선일보	1935. 4. 3.	→시집(「卓上語」(四句):2,5,7,8
心寂	조선문단	1935. 4.	→ 시집 『無心』
瞳孔의 觸手	조선문단	1935. 5.	

제 목	발 표 지	발 표 연 도	비 고
詩道			→ 시집 『無心』 : 1935.5.20.
無心	신인문학	1935. 12.	→ 시집 『無心』
目擊		1936.	→ 시집 『無心』 : 1936.
壁	신인문학	1936. 1.	→ 시집 『無心』 : 1933.4.
邂逅	신인문학	1936. 3.	→ 시집 『無心』 : 1935.가을
구름의 哲學			→ 시집 『無心』 : 1936.8.9.
나의 離反者	신인문학	1936. 10.	: 1.16.
傷痕			→ 시집 『無心』 : 1937.
孺子			→ 시집 『無心』 : 1937.
엄마를 잃고			→ 시집 『無心』 : 1937.
病室	조광(朝光)	1937. 11.	→ 시집 『無心』 : 1937.8.26.
소리			→ 시집 『無心』 : 1938.4.
離鄉者	맥(藐)	1938. 6.	→ 시집 『無心』
孤獨	맥(藐)	1938. 9.	: 1936.
鄉愁	아(芽)	1938. 9.	→ 시집 『無心』
水壑	아(芽)	1938. 9.	→ 시집 『無心』 : 시제 『氷壑』
十月	동아일보	1938. 10. 1.	『詩林』(1939.3) 제수록
秋夜三日: 有歌	조선일보	1938. 10. 13.	『詩林』(1939.3) 제수록
: 新村			
: 秋人			
秋月賦	맥(藐)	1938. 10.	: 1938.10.11.
모르는 체	맥(藐)	1938. 10.	
無常	맥(藐)	1938. 10.	
斷絃		1938. 10.	→ 시집 『無心』
밤이란		1938. 10.	→ 시집 『無心』
浮雲		1938. 10.	→ 시집 『無心』
死相		1938. 10.	→ 시집 『無心』
生死 中間		1938. 10.	→ 시집 『無心』
내 마음 나의 에디오피아어		1938. 10.	→ 시집 『無心』
懺悔		1938. 10.	→ 시집 『無心』
맹서		1938. 10.	→ 시집 『無心』
斷想		1938. 10.	→ 시집 『無心』
이 마음을		1938. 10.	→ 시집 『無心』
벗에게		1938. 10.	→ 시집 『無心』
누에		1938. 10.	→ 시집 『無心』
怨恨		1938. 10.	→ 시집 『無心』
窓外		1938. 10.	→ 시집, 『雄鷄』(39.1) 제수록

제 목	발 표 지	발 표 연 도	비 고
悲歌		1938. 10.	→ 시집 『無心』
눈물은 제 것		1938. 10.	→ 시집 『無心』
待人賦		1938. 10.	→ 시집 『無心』
그날부터		1938. 10.	→ 시집 『無心』
秋風		1938. 10.	→ 시집 『無心』
手術		1938. 10.	→ 시집 『無心』
兒死		1938. 10.	→ 시집 『無心』
醫心		1938. 10.	→ 시집 『無心』
秋死	비관	1938. 12.	: 1938.10.19.
嬰兒譜	맥(纈)	1938. 12.	: 1938.11.1.
祈願	동아일보	1939. 1. 29.	
落葉	조선문학	1939. 3.	: 1938.10.18.
四月	동아일보	1939. 4. 23.	: 1939.4.17.
憂愁愛	시학(詩學)	1939. 8.	: 1939.4.3.
小夜曲: 1. 間男	詩建設	1940. 6.	: 1938.9.
: 2. 떠나지요			: 1938.9.10.
: 3. 못 옛케거늘			: 1938.9.10.
건넌 마을	조선동요전집	1946.	

위와 같은 시작품 연보를 작성하는 데에 앞에서 언급한 이미 작성된 시작품 연보가¹⁰⁾ 많은 참고가 되었다. 그래서 시작품 연보를 작성하는 데에 도움을 받은 점도 상당히 있지만, 이 연보에서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시작품도 적지 않았으므로 이를 밝히고 보다 정확한 시작품 연보를 제작성하여 제시함으로써 김대봉의 시에 대하여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초작업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첫째, 기존에 작성된 시작품 연보에 누락된 작품에 대한 사항을 첨가하였다. 이를 차례대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농부의 노래」, 「갈매기」, 「나의 소원」, 「나루배 사공도」, 「秋夜三日」 중 「有歌」, 「벗에게」, 「건넌 마을」

둘째, 기존에 작성된 시작품 연보에 연작시 여부가 불분명하고, 어떤 경우는 연작시의 큰 제목과 작은 제목이 같이 처리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았다. 「生活

10) 한정호, 「포백 김대봉의 삶과 문학」, 『경남어문논집』 제7·8합집, 경남대 국문과, 1995.12., 265-267쪽. 「작품 죽보기」.

詩篇」 4편과 「傷春曲」 3편 그리고 「小夜曲」 3편이 전자에 해당하고, 「秋夜三日」 3편이 후자에 속한다. 또한 「卓上語」(十篇)이 시집 『無心』에서는 「卓上語」(四句)로 일부만 재수록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 기존에 작성된 시작품 연보에서 시제목이 잘못된 경우를 바로 잡았다. 이를 차례대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아가의 點景」을 「夜街의 點景」으로, 「詛呪의 西京」을 「咀呪할 西京」으로, 「내마음 나의 이디오피아」를 「내마음 나의 에디오피아어」로, 「瓔兒譜」를 「嬰兒譜」로 바로 잡았다.

넷째, 기존에 작성된 시작품 연보에서 연도가 잘못된 경우를 바로 잡았다. 「水壑」이 발표된 『芽』의 발행연도를 1938.10.에서 1938.9.로 바로 잡았고, 『동아일보』에 발표된 「十月」과 『조선일보』에 발표된 연작시 「秋夜三日」의 발표연월일을 1938.10.13.에서 1938.10.1로, 1938.10.에서 1938.10.13.로 각각 바로 잡았다. 시집 『無心』을 통하여 발표된 「懺悔」의 연도가 1932년으로 되어 있는데, 시집을 보면 시를 쓴 연도가 밝혀져 있지 않아 잘못 표기된 것임을 알 수 있어 시집이 간행된 1938년으로 바로 잡았다.

넷째, 기존에 작성된 시작품 연보에서 중복되어 있는 경우를 바로 잡았다. 「조선일보」(1933.9.27)에 발표된 연작시 「生活詩篇」 중 「無題」는 「엄마는」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시집 『無心』에 실려 있고, 연작시 「傷春曲」 중 「相殺(兩面生活)」은 「相殺」라는 제목으로 시집 『無心』에 실려 있는 점을 밝혀 중복하여 연보 작성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았다. 또한 「還鄉」과 연작시 「傷春曲」 중 「幻影」은 같은 제목으로 시집 『無心』에 실려 있는 것을 밝혀 중복하여 연보 작성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았다. 그리고 「十月」, 연작시 「秋夜三日」 중 「新村」, 연작시 「生活詩篇」 중 「永遠한 不幸」이 『詩林』에 재수록되어 있는 것을 첨가하여 바로 잡았다.

4. 시집 『無心』의 구성원리

김대봉 시인이 펴낸 유일한 시집인 『無心』은 전체 「無心篇」, 「斷絃의 悲鳴」, 「点想集」, 「傷春曲」, 「나의 鄉歌」, 「工事場」 등 여섯 부로 구성되어 있다. 김대

봉에 대한 기존의 논문 두 편에서는 그의 시집의 구성원리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대봉 자신이 그의 유일한 시집을 묶어내면서 시집을 전체 여섯 부로 구성하고 있는 점은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섯 부의 각각이 김대봉의 시세계와 그 바탕이 되는 미학이 서로 구분되고 있는 점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우선, 이 여섯 부가 앞에서 정리한 시작품 연보와 어떠한 시간적 질서도 이루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앞의 시작품 연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작품 가운데 제일 먼저 씌어진 작품은 「텅 비고 싶어」인데 전체 여섯 부 가운데 「傷春曲」에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은 「보리피리」인데 전체 여섯 부 가운데 「点想集」에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은 「自誓」인데 「無心篇」에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은 「還鄉」인데 「나의 鄉歌」에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은 「차라리 울어줌이」인데 「斷絃의 悲鳴」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그의 시세계와 그 바탕이 되는 미학이 통시적으로 변화되기보다는 공시적으로 다양화되어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사항이 된다. 다시 말하면, 김대봉의 시세계는 통시적인 변모양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게 아니라 공시적인 다양성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시집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여섯 부 가운데 「工事場」은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제목 「病室」, 「手術」, 「兒死」, 「醫心」에서 알 수 있듯이 김대봉 자신의 직업인 의사생활의 체험과 그 의식을 형상화한 부분에 해당한다. 여기서 병원을 공사장으로 부르고 있는 점이 특이한데, 그것의 의미는 수록되어 있는 구체적인 작품을 통하여 나중에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나의 鄉歌」도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제목 「還鄉」, 「離鄉者」, 「鄉愁」에서 알 수 있듯이 김대봉이 지니고 있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부분에 해당한다. 여기서 「鄉歌」는 고향에 대한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전체 여섯 부 가운데 「点想集」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적 대상에 대한 짧은 착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은 상당히 짧은 작품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傷春曲」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치있는 것을 잃은 상실과 슬픔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斷絃의 悲鳴」은 그 제목이 환기하는 것처럼 결단과 비장함의 정

서를 내재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無心篇」은 그 제목이 환기하는 것처럼 탈속과 유유자적함의 정서를 내재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하지만 「傷春曲」과 「斷絃의 悲鳴」의 경우, 각자 그 세계를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제목의 ‘傷春’·‘悲鳴’에서도 환기되는 바와 같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일부의 작품들은 그 시적 세계가 서로 넘나들고 있다. 그리고 「斷絃의 悲鳴」과 「無心篇」의 경우 제목의 ‘斷絃’·‘無心’에서도 환기되는 바와 같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일부의 작품들은 그 시적 세계가 서로 넘나들고 있다. 따라서 시집 『無心』은 전체 여섯 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나눌 수 있는 세 부와 서로 넘나들 수 있는 세 부로 이루어져 있어, 시집 『無心』을 통해서도 김대봉의 시 세계를 네다섯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 된다.

5. 시세계의 공시적 다양성

위에서 시집 『無心』의 구성원리를 살펴보고 또 이를 앞에서 작성한 시작품 연보를 활용하여 시집의 각 부에 수록되어 있는 시작품의 원래 발표 및 창작 시기를 견주어 살펴봄으로써 김대봉의 시세계는 통시적인 변모양상이 아니라 공시적인 다양성으로 파악해야 함을 밝혀내었다. 또한 시집 『無心』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시작품의 경우에도, 시작품 연보상의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통시적인 변모양상을 드러내기보다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어떠한 질서도 보이고 있지 않은 공시적인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는 시집에 여섯 부로 나누어져 있고 실제로 네다섯 부로 구분될 수 있는 그의 시세계에 합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하지만 앞의 시작품 연보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김대봉이 시집을 엮으면서 그전에 문예지 및 신문 매체를 통하여 발표를 한 바가 있지 않은 상당수의 작품을 시집에 수록하면서도, 문예지 및 신문 매체를 통하여 발표를 한 바 있는 어떤 경향의 작품은 시집에 수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시집에 수록하지 않은 시작품을 그의 다양한 시 세계에 포함하여 살펴야 한다. 이는 「鐵世界の 使命」, 「先驅者의 偉力」, 「迎春辭」, 「濁浪의 洛東江」, 「洪水餘韻」, 「咀呪할 西京」 등의 작품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른바 역사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편들이다. 이는 시집 『無心』을 엮은 때가 일제의 단말마적인 압제가 극한에 달해 있던 때인 1938년이라서, 위협 부담이 있는 시편은 시집에 수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대봉의 시 세계 전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마땅히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포함해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의 시작품 연보를 살펴보면, 김대봉은 아동 문예지인 『어린이』에 「떠나는 동무」·「아버지 손을 보고」와 『조선동요전집』에 「건넌 마을」을 발표하였고, 일반 문예지 및 신문 매체에 ‘동시’ 내지는 ‘동요’의 명칭을 붙여 「나루배 사공도」·「보리피리」·「어린이의 말」을 발표하거나 그 매체의 어린이 혹은 아동 페이지에 「나루배」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김대봉이 뚜렷이 장르를 구분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시들을 동시 혹은 동요로 따로 다루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 이제, 김대봉의 시 세계의 다양성을 각 시적 지향을 대표하는 실제 시작품을 들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현실주의 성향의 동시를 들 수 있다. 동시의 경우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김대봉 자신이 뚜렷하게 장르의식을 보이고 있는 시 유형에 해당하다. 그런데, 그의 동시는 이른바 현실주의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발동선 나루배 잘단이는대
 넷날의 배사공 어둠을간다
 저건너 갈밭이 팔린그날에
 이사꾼 써날째 가티갓단다

- 「나루배 사공도」 전문

위에 인용한 동시는, 일반적인 동시의 형식적 특징인 단형·단순한 형태·울격적 질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에 해당한다. 그러면서도, 이 동시는 널리 일반화되어 있는 낭만적이고 이상화되어 있는 동심을 표출하는 동시와는 달리 구체적인 궁핍한 현실 삶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시적 상황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그들의 필요에 의해 근대화시킨 산물인 ‘발동선’이 다니고 있는 현재는 근대화된 발동선 이전에 강을 오가던 교통수단인 나루배를 이끌었던 사공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된다. 그런데 그 사공은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근대 문물에 떠밀린 존재일 뿐만 아니라, 1920년대에 들어 일제에 의해 본격화된 농토 수탈에 의하여 떠나가게 된 이농민인 것이

다.¹¹⁾ 이 작품은 동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민요적 성격을 지닌 일종의 유희민시라고도 볼 수 있는 작품에 해당한다. 김대봉의 동시는 이와 같이 대체로 짧은 형식을 취하면서 그 세계는 현실주의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¹²⁾

김대봉의 동시 가운데 유일하게 상당히 긴 작품인 「아버지 손을 보고」는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보면서 슬픔을 느끼는 가운데 굳은 다짐을 하고 있는 작품인데, “목석이 안인 이 아들은 / 「삶은 싸흠이란」 크나큰 가르침을 / 쉬임없이 말없는곳에서 이리서이다”라는 시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와 어른의 목소리가 겹쳐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다른 동시의 경우에도, 위에 인용한 「나루배 사공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버지 손을 보고」보다는 덜하지만 마찬가지로 파악된다. 다시 말하면, 그의 동시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하여 어른의 시각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김대봉의 동시가 어린이와 어른의 목소리가 겹쳐져 있는 화자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시적 지향이 현실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 된다.

둘째는 비극적 정조의 단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의 작품들은, 앞에서 살펴본 「아버지 손을 보고」를 제외한 현실주의 성향의 동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짧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상당히 짧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통하지만 무엇보다도 김대봉 자신이 보인 뚜렷한 장르의식에 따라 이 두 성향은 구분되어야 한다.¹³⁾ 비극적 정조의 단시들은 시집 『無心』에서는 「点想集」에 묶여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에 해당한다.

깊이 뺏속에
사무친 원한은
그네가 보낸 선물.

내 눈알이 붉어질 때마다

11) 윤영천, 『한국의 유희민시』, 실천문화사, 1987, 32-36쪽 참고.
12) 한정호, 「김대봉의 동시관과 동시 세계」, 『지역문학연구』 제3호, 경남지역문화회, 1998.9, 24쪽. 여기서 김대봉의 동시를 정리하면서, “사회성과 현실성을 강조하는 계급주의 동시관을 펴며, 그에 걸맞는 동시 작품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13) 김부순, 앞의 논문, 앞의 책, 282-284쪽에서는 이 두 성향을 구분하지 않고 ‘서정적 단형시’로 묶고 있다.

그 선물을 차고 차고
또한 세며 돌이켜 보다.

- 「怨恨」 전문

위에 인용한 단시는 「点想集」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인데, 현실주의 성향의 동시와는 달리 작품 제목에서도 바로 드러나 있듯이, 사회현실보다는 인간관계와 그에 따른 운명에 의해 발생하는 비극적 정조의 일종인 원한을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서 원한의 정조는 선물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고 있다. 나아가 그 원한이 역설적으로 선물로 비유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며 돌이켜 보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시적 청자인 ‘그네’는 시적 화자인 ‘나’에게 선물인 원한을 주고는 멀리 떠나 있다. 그래서 지나간 날을 세면서 돌이키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앞에서 살펴본 현실주의 성향의 동시와는 달리, 어른의 화자로 고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김대봉이 보여주고 있는 비극적 정조의 단시는 장르의식에서만 아니라 주제적 정조와 시적 화자의 면에서 현실주의 성향의 동시와는 뚜렷이 구분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셋째는 이향(離鄉)과 향수의 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의 시들은 시집 『無心』에서는 「나의 鄉歌」에 묶어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에 해당한다. 여기서 ‘향가’는 고향에 대한 노래 즉,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라는 의미인 것이다.

아침 빛 숲 저편에서 걸어오고
질은 안개 하늘 위로 멀어간다.

그 세에 나타나는 마을
오랜 옛날부터 그림던 故鄉이여.

소스라치게도 내 혼은 끌리며
내 몸은 그네 품에 껴안기는듯하이.

- 「還鄉」 부분

위에 인용한 시는 「나의 鄉歌」에 수록되어 있는 시 가운데 한 편인데,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향(離鄉)이 전제되어 있다. 여기서 오랜 이향 끝에 환향하고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시적 화자는, “오랜 옛날부터 그림던 故鄉

이여”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깊은 향수에 젖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 시는 1932년 10월에 『신동아』에 발표된 작품인데, 김대봉이 1929년 고향을 떠나 평양에 있는 평양의학전문학교에서 1933년 졸업을 하여 1934년 고향인 김해로 돌아올 때까지 의학 공부를 한 것으로 보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있는 ‘환향’의 체험은 실제로는 이향 가운데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환향임을 알 수가 있다. 이에서 김대봉이 이 시기에 그만큼 깊은 향수에 젖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부분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김대봉이 보여주고 있는 이향과 향수의 시는 깊은 향수에는 젖어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 감정이 절제된 가운데 형상화되고 있다. 비록 “혼”이 “소스라치게도” “끌리며” “몸”이 고향의 “품에” 안기는 듯하다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그 고향의 풍광에 대한 묘사가 “아침 빛 숲 저편에서 걸어오고 / 짙은 안개 하늘 위로 멀어가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절제된 형식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시집 『無心』의 「傷春曲」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시들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고 「斷絃의 悲鳴」 부분에서도 엿보이기도 하는 ‘상실의식’의 시라고 부를 수 있는 시적 성향은, 비극적 정조의 단사와 이향과 향수의 시 중간쯤에 위치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 만큼 뚜렷한 지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두 지향의 변주로 볼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그래서 따로 드러내어 살펴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된다.

넷째는 의사 체험 시를 들 수 있다. 김대봉은 시인이기도 하지만 평생을 의사로서 예술활동에 전념한 사람이다. 의사로서 보고 느낀 바를 시로 형상화한다는 것은 인생과 문학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의사 체험 시들은 시집 『無心』에서는 「工事場」에 묶여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에 해당한다. 병원을 공사장에 비유한 것은, 의술이란 정성을 다해 땀흘려야 하는 활동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肉體가 썩으면 靈魂도 썩는다.
오! 사라진 人生의 봄이여.
잃어버린 눈알 끊어진 발
五臟의 退化를

統制할 精神이 肉體를 지배하지 못하거늘.

...(중략)...

病은 사람의 敵 自然 惡意의 奴隸이다.
抗爭하라, 善醫어,

- 「病室」부분

위에 인용한 시와 같은 의사 체험 시들은, 앞에서 살펴본 현실주의 성향의 동시와 비극적 정조의 단시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상당히 긴 작품으로 되어 있다. 김대봉은 의사 체험 시에서는 철저하게 과학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肉體가 썩으면 靈魂도 썩는다”는 발화는 정통적인 시적 발상에 입각한 발화이기보다는 엄격한 과학적 인식에 입각한 발화에 해당한다. 과학에 따르면,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 시적 태도에서는 영혼이 보다 중요할지라도 과학적 태도에서는 육체가 보다 중요한 것이 된다. 그래서 “精神이 肉體를 지배하지 못하거늘”이라는 발언이 이 시의 한 구절로 직접 드러나 있는 것이다. “잃어버린 눈알 끊어진 발”이라고 너무도 냉정하게 묘사되어 있는 구절은, 이러한 과학적 인식에 따른 철저한 객관적 태도에 입각해서 형상화되고 있는 구절인 셈이다. 김대봉이 의사 체험 시에서 인생과 문학을 일치시키는 방법은 바로 과학적 인식에 입각하여 시를 쓰는 점에 있다. 문학적 인식에서는 미화되기도 한 병이,¹⁴⁾ 이 시에는 철저하게 “사람의 敵”, “惡意의 노예”로 규정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의사는 그 병에 대하여 항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시는 김대봉이 쓴 시 가운데 상당한 길이를 지닌 시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징인 청자지향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여기서 청자지향적 성격이라 함은, 표면에 청자가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함축적 청자(독자)일지라도 시의 어조가 청자지향의 명령·요청·청유(권고)·애원·질문(의문)·의심 등의 양상을 띠는 경우를

14) 柄谷行人, 박유하 역, 「병이라는 의미」,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여기서 문학작품을 통하여 낭만적인 것과 죽음에 이르는 병(예를 들어 이전의 결핵)이 연관되는 점, 죽음에 이르는 병이 로맨틱한 연상을 획득시키는 일종의 신화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밝히고 있다.

말한다.¹⁵⁾ 이 시에서는 “善醫여”, “人生의 봄이여”와 같이 청자지향의 호격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청자화되어 있는 ‘善醫’는 시적 청자이면서도 바로 시적 화자이며 나아가 시인 자신이기도 하다. 그래서 “抗爭하라, 善醫여,”라는 구절은 시적 청자에 대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시적 화자 스스로의 굳은 다짐이기도 한 것이다. 이 시에서는 이와 같이 시적 화자가 청자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봄”인 사물도 청자화되어 전체적으로 강렬한 어조를 형성하고 있어 호격뿐만 아니라 “오!”와 같은 영탄에 의해 감정이 과잉 노출되고 그럼으로써 또한 서술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의사로서의 직업에 투철한 자기인식과 의술의 인간주의의 선언이라 할 수 있는 의사 체험 시는,¹⁶⁾ 철저하게 과학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구제하려는 태도가 청자지향적 성격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강렬하게 드러나 감정이 과잉 노출되는 묘한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시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무심(無心)과 심적(心寂)의 시를 들 수 있다. ‘무심’은 시집 제목이기도 하고 그 시집의 한 부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집 『無心』에 수록되어 있는 실제 시를 살펴보면, 「無心篇」과 「斷絃의 悲鳴」에 묶여있는 시들의 성향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넘나들고 있다. 따라서 「無心篇」과 「斷絃의 悲鳴」 두 부 가운데 무심과 심적의 시적 성향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야간의 물은 끓고,
잠긴 나뭇가지에는 꽃이 피다.

...(중략)...

피는 이 꽃에는
계집과 술과 노래가 없더라.

15) 김준오, 『시론』, 제4판, 삼지원, 1997, 276-277쪽. 299쪽. 함축적 시인, 화자, 청자, 함축적 독자의 용어도 이에 따른다.

16) 김부순, 앞의 논문, 앞의 책, 287쪽.

피는 이 꽃에는
주인도 사람도 없더라.

- 「無心」 부분

위에 인용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두 계열의 이미지군이 서로 대립되어 있다. 숲불·끓는 물·피는 꽃이 한 이미지군을 형성하고, 계집과 술과 노래·주인과 사람이 한 이미지군을 형성하고 있다. 앞의 이미지군은 사물과 자연의 이미지로서 강렬한 생명성을 띠며 생성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고, 뒤의 이미지군은 인간과 문화의 이미지로서 향유와 그 주체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¹⁷⁾ 김대봉은 무심의 세계를 인간이 향유하는 문화의 세계를 벗어나 있는 사물과 자연의 생명성의 세계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것은 일상적인 삶의 세계를 벗어난 탈속의 세계이면서 세태에 따라 변화 많은 인간세계와는 차이가 있는 변함 없는 세계인 것이다. 그 세계는, 위의 인용에서 중략한 부분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낮과 밤”의 시간적인 변화와 “눈”과 “비”의 기후적인 변화가 없는 계속 지속되는 세계이다. 그 세계는 생활세계를 이루는 가장 가까운 인간 주체인 “아버이”와 “스승”과 “벗”으로부터도 벗어나 있는 세계이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푸른 하늘과 구름” 그리고 “바다와 산”이라는 자연을 그 자체로 대면하는 심적의 세계(「心寂」)인 것이다. 그리고 「斷絃의 悲鳴」에 수록되어 있는 「詩道」라는 작품에서는 “詩가 나를 邪念의 世界에서 / 無心の 世界에로 이끈다”라고 하여 사념의 세계와 대립되는 무심의 세계가 다름 아닌 시도(詩道)라고 하고 있다. 이 무심과 심적의 시는 지향하는 세계만큼이나, 김대봉의 시에서는 절제된 형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 된다.

여섯째는 결단과 비장함의 시를 들 수 있다. 김대봉이 어떤 시에서 무심과 심적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현실적인 삶 그것도 일제 강점기라는 압제적이고 궁핍한 시대의 삶을 견디며 살아가면서 그 세계는 지속적으로 추구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시에서는 압제적이고 궁핍한 현실적인 삶을 타개하기 위한 비장한 결단을 드러내 보이는 시적 지향을 드러내고 있

17) 김부순, 앞의 논문, 앞의 책, 295쪽. 여기서는 앞의 이미지군이 “객관적인 세계의 운행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뒤의 이미지군이 “생성과 변형의 활동을 지니는 것들로서 인간적인 삶의 내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

生生하게 응시된 현실,
 생명을 통제하는 xx에
 피 흘리며 싸울 意志만이,
 未來生의 賦間者 連結하리라.
 無二의 推定, 唯一한 法則을 얻기 위하여.

아! 그러면 一般의 思考야. 一般의 意志야.
 강보에 어린 나를 받기며 맞지 않으려느냐.

- 「出發」 부분

시집 『無心』 가운데 「無心篇」과 「斷絃의 悲鳴」에 묶여있는 시들의 성향이 서로 넘나들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듯이, 위에 인용한 시는 「斷絃의 悲鳴」이 아닌 「無心篇」에 수록되어 있으면서도 무심과 심적의 시와는 달리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비장한 결단을 드러내고 있는 시에 해당한다. 시 제목인 ‘출발’ 자체가 이를 환기하고 있기도 하다.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비장한 결단은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生生하게 응시된 현실”이라는 구절은 그래서 작품에 직접 드러나 있는 구절이 된다. 그런데, 압제적이고 궁핍한 일제하의 현실은 “생명을 통제하는” 현실인 것이다. 변함 없는 생명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김대봉의 결단과 비장함의 시는 무심과 심적의 시와 서로 통하는 셈이다. 김대봉은 결단과 비장함의 시를 통하여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서 현실에 대응하는 “無二의 推定, 唯一한 法則”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것은 “피 흘리며 싸울 意志”라는 비장한 결단이다. 이러한 의지 그 비장한 결단만이 “未來生” 즉 미래의 삶을 연결하여 개척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직접 드러나 있다.

결단과 비장함의 시는 상당히 긴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대봉이 쓴 시 가운데 상당한 길이를 지닌 시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징인 청자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위에 인용한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라는 영탄과 함께 “一般의 思考야. 一般의 意志야.”처럼 사물 나아가 관념까지도 청자화하여 호격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과도한 감정을 드러내는 강렬한 어조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비장한 결단을 드러내는 시적 성향은 바로 시와 시인 나

아가 예술과 예술가에게 시와 예술이 지향하는 바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결단을 드러내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시적 성향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오라, 朝鮮의 詩人이여, 音樂家여, 美術家여. / 街頭에 數 많은 群衆은 제가끔 瞳孔과 鼓膜과 聲帶를 가지고 있나니,” “너희들 詩人은 거리거리로 헤매 다니며, / 가고 오는 사람들 앞에서 / 너희들이 가장 信念 있는 詩를 읊으라.”(「街頭의 宣言」)라고 역시 청자지향의 격정적인 어조를 취하여, 신념으로써 군중을 이끌어가는 시를 쓰고 예술을 하는 시인과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다. 그런데, 김대봉 자신이 시인인 만큼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이기도 한 것이다.

일곱째는 역사의식이 두드러진 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시적 성향은 여섯 번째와 상통하지만, 뚜렷한 역사의식에 의하여 압제적이고 궁핍한 현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비장한 결단보다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고발이 두드러져 있는 시적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김대봉은 문예지와 신문 매체에 발표한 역사의식이 두드러진 시는 시집 『無心』을 엮을 때에는 여기에 수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革命軍같이 激衝한 濁浪의
 無上의 破壞와 至極한 專橫의 닳이었나니
 달포동안 死迫하는 飢餓와 싸호든 大衆은
 …(중략)…
 집을 앗긴자
 水穀을 빼긴자
 부모를 여인자
 病床에 呻吟튼者
 濁流에 行方不明한者
 그후 大體 어떻게 되었단말인가
 …(중략)…
 노예의 목장인 大渚들은
 불법의 생산지 大渚들은
 xxx의 탐욕처인 大渚들은
 거미줄같은 小作의 延命線을 빠앗서갔나니

- 「濁浪의 洛東江」 부분

제목 중의 ‘낙동강’ 자체가 역사성을 환기시키는 자연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인데, 그 앞에서 수식하고 있는 ‘탁랑(濁浪)’이란 말이 일제강점기 1930년대 초 당시의 압제적이고 궁핍한 현실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압제적이고 궁핍한 현실은 시적 화자의 분노하는 격정적인 어조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 현실은 일제와 거기에 빌붙은 악덕 지주들의 “無上의破壞와 至極한專橫”에 의해 “집을 앗긴자 / 水穀을 빼긴자”들이 넘쳐나는 현실이며 그로 인하여 “부모를 여인자 / 病床에 呻吟튼者 / 濁流에 行方不明한者”들이 넘쳐나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다른 무엇보다도 생존의 최저조건을 빼앗아간 현실인데, 이 시에서는 이를 “거미줄같은 小作의延命線”을 빼앗긴 “飢餓”선상에 있는 현실이라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낙동강변에 있고 김해평야를 이루는 “大渚들”은 그 곁에 살면서 이 들을 경작한 농민에게 양식을 얻도록 해주는 장소라기보다는 농민들을 부러먹고 식량은 제대로 주지 않는 “노예의 목장” 나아가 “불법”을 저지르는 “생산지”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이 작품 『濁浪의 洛東江』은 또한 계급의식도 도드라져 있는 것이 된다. 이는 역사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김대봉의 다른 작품보다도 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대봉의 시적 성향 가운데 역사의식이 두드러져 있는 이러한 시들이 가장 긴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위에 인용한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역시 전체가 청자지향적 성격의 격정적인 어조로 이끌어져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대봉은 짧은 동시에서도 현실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져 구체적인 궁핍한 현실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주의적 성향은 이와 같은 상당한 긴 형식으로 서술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청자지향의 격정적인 어조를 취하고 있는 ‘역사의식’이 두드러져 있는 시에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시가 『신동아』에 발표된 시기 1933년은 김대봉이 아직 평양에서 고향인 김해로 돌아온 1934년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 수탈된 장소로 등장하는 ‘낙동강’은 이 곳에만 한정되지 않고 조선 전체로 확장될 수가 있다. 이 점은 이러한 성향의 시에 드러나 있는 역사의식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된다.

6. 시사적 의의

김대봉이 시인으로서 활동한 시기는, 앞에서 제시한 시작품 연보를 보면,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3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시세계는 위에서 자세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시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930년대 시의 큰 지형에 대해서는 1930년대 시 양상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성과를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⁸⁾

첫째는 시문학파를 중심으로 한 탈이데올로기의 순수서정시

둘째는 주지주의 계열의 온건한 모더니즘과 초현실주의 계열의 과격한 모더니즘의 시

셋째는 생명파를 중심으로 한 생의 본바탕을 탐구한 시

넷째는 일제 강점기의 궁핍한 현실을 반영하여 비판하고 있는 현실주의의 시

김대봉의 시세계는 이 중에서는 현실주의의 시 경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본다면 그의 시세계 가운데 ‘역사의식이 두드러진 시’가 여기에 속하고 ‘결단과 비장함의 시’는 그 성향 면에서 이와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현실주의 성향의 동시는 그 성향은 같지만 ‘동시’로 그 장르를 확장한 것이 된다. 그리고 김대봉의 시세계는 이외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극적 정조의 단시’, ‘이향과 향수의 시’, ‘무심과 심적의 시’, ‘의사 체험 시’ 등으로도 크게 그 성향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시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시적 다양성의 시적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는 그 자체가 1930년대에는 드문 경우로서 김대봉이 시적 탐색에 적극 힘썼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다양한 시적 성향은 거기에 상응하는 시적 형식과 형상화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볼 때에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시까지 장르를 확장하여 현실주의 성향의 동시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점

18) 김용직, 「서정, 실험, 제 목소리 담기 - 1930년대 한국시의 전개」,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89. 『한국 현대시사의 쟁점』, 시와시학사, 1991. 소재 정효구, 「1930년대 순수서정시 운동의 시대적 의미」; 최혜실, 「모더니즘의 의미와 한계」; 최두석, 「1930년대 후반의 지적 상황」 참고.

도 상당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대봉은 그 당시로서는 아주 드물게도 의사를 직업으로 하면서 시를 발표한 시인인데, 의사로서 보고 느낀 바를 형상화한 ‘의사 체험 시’는 그만의 독특한 시적 지향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오늘날 부산 문단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의사를 직업으로 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 의사 시인이 많은데, 한국 근현대시사에서 김대봉은 의사 시인의 한 선례이면서 한 원형이 되고 있는 것이다.

7. 결 론

본 연구는, 한국문학사에서 누락된 역량 있는 문인을 발굴하여 재조명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지형을 넓혀 새로 짜고 그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여, 일제 강점기 부산·경남 지역 시인 발굴 및 재조명 연구의 일환으로 김대봉을 재발굴하여 재조명한 연구이다. 그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작성된 김대봉의 시작품 연보의 오류를 몇 유형으로 나누어 밝히고 그 연보를 정확하게 재작성함으로써, 김대봉의 시에 대해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초작업을 새롭게 하였다.

둘째, 김대봉이 펴낸 유일한 시집인 『無心』의 구성원리를, 각 부의 시세계와 그 바탕이 되는 미학이 연관되어 구분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자세히 밝혀내었다.

셋째, 시집 『無心』의 구성원리와 시작품 연보를 연관시켜 시집의 각 부에 수록되어 있는 시작품의 원래 발표 및 창작 시기를 견주어 살펴보고 또한 시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시작품의 경우도 비교함으로써, 김대봉의 시세계의 공시적 다양성을 밝혀내었다.

넷째, 김대봉의 시세계의 공시적 다양성을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의 상관성에 입각하여, 현실주의 성향의 동시·비극적 정조의 단시·이향과 향수의 시·의사 체험 시·무심과 심적의 시·결단과 비장함의 시·역사의식이 두드러진 시 등 크게 7가지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섯째, 김대봉 시의 시사적 의의를, 1930년대의 시적 지형에서 다양한 시적 성향을 탐색한 점과 현실주의 성향의 동시의 모범적인 사례를 남긴 점 그리고 한국 근현대시사에서 의사 시인의 한 원형으로서 의사 체험 시라는 독특한 시적 지향을 보인 점 등으로 파악하였다.

일제 강점기 부산·경남 지역 시인 발굴 및 재조명 연구의 일환으로 김대봉을 재발굴하여 재조명한 본 연구는, 연구의 후속 연구과제로 일제 강점기 이후로 그 시기를 확대하여 부산·경남지역의 시인들을 재조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이와 유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와 그 틀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부산·경남지역의 시인을 (재)발굴하여 재조명하는 본 논문과 같은 연구는, 지역문학인의 (재)발굴 및 재조명을 바탕으로 함으로써 지역문학은 물론 한국문학 전체의 균형 잡힌 지형을 구성한 바탕 위에 풍요로운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김대봉, 지역문학, 발굴, 재조명, 지형, 작품 연보, 구성원리, 동시적 다양성, 시사적 의의

참고문헌

- 김부순, 「시인 김대봉의 작품세계 연구」, 『서강어문』 제10집, 서강어문학회, 1994.12.
- 김용직, 「서정, 실험, 제 목소리 담기 - 1930년대 한국시의 전개」,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89.
- 김용호, 「오늘을 - 김대봉형을 생각하며」, 『중외일보』, 1946.3.19.
- 김용호, 「무심에 핀 꽃 김대봉」, 『현대문학』, 1962.12.
- 김준오, 『시론』, 제4판, 삼지원, 1997.
- 윤곤강, 「김대봉시집 「무심」의 푸로필」, 『동아일보』, 1938.11.8.
- 윤영천, 『한국의 유민시』, 실천문학사, 1987

- 임화, 「김대봉 시집 『무심』을 독(讀)함」, 『조선일보』, 1938.11.4.
- 정효구, 「1930년대 순수서정시 운동의 시대적 의미」, 『한국 현대시사의 쟁점』, 시와시학사, 1991.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제3판, 지식산업사, 1994.
- 최두석, 「1930년대 후반의 지적 상황」, 『한국 현대시사의 쟁점』, 시와시학사, 1991.
- 최혜실, 「모더니즘의 의미와 한계」, 『한국 현대시사의 쟁점』, 시와시학사, 1991.
- 한정호, 「포백 김대봉의 삶과 문학」, 『경남어문논집』 제7·8 합집, 경남대 국문과, 1995.12.
- 한정호, 「김대봉의 동시관과 동시 세계」, 『지역문학연구』 제3호, 경남지역문학회, 1998.9
- 柄谷行人, 박유하 역, 「병이라는 의미」,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Abstract>

A Study on Revaluation about Poets in
Busan · GyungNam in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 A Study on the poet Kim Dae-Bong

Ko, Hyun-Chul

This thesis is to study on revaluation about Kim Dae-Bong as a case of revaluation about poets in Busan · GyungNam in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s:

First, this thesis corrects several errors about chronology of Kim Dae-Bong's works and reforms the chronology exactly.

Second, it investigates the constituent principle of Kim Dae-Bong's anthology.

Third, it investigates the synchronic diversity of the realms of Kim Dae-Bong's poems through the relation between the chronology Kim Dae-Bong's works and the constituent principle of Kim Dae-Bong's anthology.

Fourth, it investigates minutely that the synchronic diversity of the realms of Kim Dae-Bong's poems are classified into seven types through the combination of it's forms and it's contents.

Fifth, it is claimed that Kim Dae-Bong's poems have some significance; that is, Kim Dae-Bong's poems pursued the synchronic diversity of the realms of poetry in 1930s, Kim Dae-Bong's children's verses are a model of realism children's verse, and Kim Dae-Bong's poems contain the medical poems peculiarly.